여성가족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9. 5.(목) 12:00 배포 2024. 9. 5.(목) 08:00

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

-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조망
- '23년 15~64세 여성 고용률은 61.4%로 '15년 대비 5.7%p 상승,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.3%로 '15년 대비 11.7%p 상승
- '23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 6천 명 중 남성 비율은 28.0%로 '15년 대비 5배 증가
- '23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남녀(43.9%, 51.9%) 모두 '17년 대비 증가, 남성의 증가폭(4.9%p)이 여성(3.5%p)보다 높게 나타나

□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(9.1~9.7)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「**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**」을 5일(목) 발표했다.

○ 「**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**」은 **인구와 가구, 노동시장, 일생활 균형, 사회인식** 등과 관련한 **시계열 통계**를 통해 **변화된 남녀의 모습**을 **살펴**보기 위한 목적으로, 각 부처 등에서 **공표**한 **자료**를 **활용**해 작성했다.

□ 「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2023년 **1인 가구**는 782만 9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**35.5%**를 **차지**하며 '15년 520만 3천 가구 대비 **50.5% 증가**했고, **남성** 1인 가구는 **30대**(21.8%), **여성**은 **60대**(18.6%)가 가장 많았다.

*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(%)

	20세 미만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	80세 이상
여성	0.7	17.7	12.8	9.2	12.6	18.6	15.2	13.1
남성	0.6	18.1	21.8	16.0	17.6	16.0	6.8	3.1

○ 2023년 **초혼 건수**는 14만 9천 건으로 '15년 23만 8천 건 대비 **37.2% 감소**했고, **평균 초혼 연령**은 여성 31.5세, 남성 34.0세로 '15년 대비 각 **1.5세, 1.4세씩 상승**했다.

* 평균 초혼 연령: ('15) 여성 30세, 남성 32.6세 → ('23) 여성 31.5세, 남성 34.0세

○ 2023년 **다문화 가구 가구원**은 약 119만 2천 명으로 '15년 약 88만 8천 명 대비 **34.2% 증가**했고, 이중 **여성 가구원**이 **52.5%**를 차지했다.

□ 2023년 **15~64세 여성 고용률**은 **61.4%**로 '15년 55.7% 대비 5.7% 포인트(p) 상승했고, 특히 **30대 초반 여성 고용률**은 **71.3%**로 '15년 59.6% 대비 **11.7%포인트(p) 상승해 M커브 곡선*이 완화**되었다.

* M커브 곡선 :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그렸을 때 30대 고용률이 하락해 M자 모양이 되는 그래프

○ 2023년 6월 기준 **총 실근로시간**은 **여성** 148.2시간, 남성 164.4시간으로, '15년 동월 대비 각 16.8시간, 14.8시간 감소했다.

* 6월 총 실근로시간: ('15) 여성 165시간, 남성 179.2시간 → ('23) 여성 148.2시간, 남성 164.4시간

○ 2023년 기혼 여성 중 **경력단절여성***은 134만 9천 명으로 '15년 207만 3천 명 대비 **34.9% 감소**했다.

* 15~54세 기혼 미취업여성 중 결혼, 임신·출산, 육아, 자녀교육,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

○ 2023년 **저임금**(중위임금의 2/3 미만) **근로자 비율**이 여성 19.0%, 남성 9.8%로 '15년 대비 **여성**은 **12.7%포인트(p)**, **남성**은 **3.5%포인트(p) 감소**했다.

* 저임금 근로자 비율: ('15) 여성 31.7%, 남성 13.3% → ('23) 여성 19.0%, 남성 9.8%

□ 2023년 **육아휴직**급여 수급자는 **12만 6천 명**으로 '15년 8만 7천 명 대비 **44.3% 증가**했고, 이중 **남성** 비율은 **28.0%**로 '15년 대비 **5배 증가**했다.

*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: ('15) 87,339명 → ('23) 126,008명(+44.3%)

**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: ('15) 여성 94.4%, 남성 5.6% → ('23) 여성 72.0%, 남성 28.0%

○ 2023년 *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**급여 수급자는 **2만 3천 명**으로 '15년 2천 명 대비 **11.3배 증가**했다.

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: ('15) 2,061명 → ('23) 23,188명

○ 2023년 **유연근무제**를 **활용**한 근로자 비율은 **여성**이 **13.9%**, **남성**이 **17.1%**로 '15년 대비 **여성**은 **3.0배, 남성**은 **3.6배 증가**했다.

*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: ('15) 여성 4.6%, 남성 4.7% → ('23) 여성 13.9%, 남성 17.1%

□ 2023년 ‘**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**’는 비율이 **여성 35.1%, 남성 34.9%**로 ’17년 대비 각 **11.5%포인트(p), 13.6%포인트(p) 증가**했다.

* ‘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’ 응답비율: (’17) 여성 23.6%, 남성 21.3%

○ 2023년 **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**고 생각하는 비율이 **여성 51.9%, 남성 43.9%**로 ’17년 대비 **각 3.5%포인트(p), 4.9%포인트(p) 증가**했다.

* ‘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가 둘 다 비슷하다’ 응답비율: (’17) 여성 48.4%, 남성 39.0%

□ **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**은 “여성, 남성의 삶을 세심히 살펴 일생활 균형 등 국민에게 **실질적인 도움**이 되는 **정책**을 지속적으로 **발굴**하고 **추진**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【붙임】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

담당 부서	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금순 (02-2100-6171)
		담당자	사무관	홍영희 (02-2100-6181)
			주무관	양승초 (02-2100-617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